

이라크, 석유 생산량 전쟁이전 수준

석유부, 1월 하루평균 생산량 240만배럴 ... 2008년 말까지 300만배럴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이 2003년 이라크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 석유부는 2008년 1월 이라크의 하루평균 석유생산량이 24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2월26일 발표했다.

이라크전쟁 발발 전인 1999년 1일 254만배럴(BP 통계기준), 2000년 258만배럴, 2002년 204만배럴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이다.

이라크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2003년 135만배럴, 2004년 204만배럴로 떨어졌었다.

석유부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투자를 받아 2008년 말까지 하루 석유 생산량을 300만배럴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1월 수출량이 5960만배럴(하루평균 192만배럴)로 전달대비 6% 증가해 석유수입도 48억1000만달러로 2.6% 늘어났다.

하루평균 154만배럴이 이라크 남부 바스라항을 거쳐 수출됐고 나머지 38만배럴이 북부 지역인 키르쿠크와 터키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한 것으로 집계돼 큰 격차를 보였다.

이라크는 2007년 전년대비 9.2% 증가한 6억배럴(하루평균 160만배럴)을 수출하며 꾸준하게 수출량을 늘려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27>